

인문평론연구회 발표 2018.4.14.

박사논문 요지 발표: 한국 근대시 형성과 漢文脈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7.)

정기인(동경외대)

이 논문은 한국 근대시 형성과 한문맥의 연관성을 해명하기 위해 최남선, 이광수, 김억, 김소월의 시와 시론과 한문맥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며, 그들의 국문시, 한시, 한시 번역, 시론을 통합적으로 고찰했다. 근대 시인이 쓴 한시는 근대문학연구 대상으로 온전히 자리매김 되지 못했는데, 이 논문은 이를 국문시와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근대문학연구의 대상을 확장했다. 기존의 한국 근대시 형성은 서구문학, 일본문학, 조선(어) 전통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근대시가 한문맥을 강하게 의식하고 이를 원천으로 활용하여 형성되었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최남선, 이광수, 김억, 김소월 등은 시론에서 한문맥의 개념어를 논리적 계기로 사용하며, 이에 근거해서 논의를 전개했다. 그들은 한시를 국문으로 번역하는 것을 통해 국문시의 형식을 실험했으며, 이를 통해 국문시를 풍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이들이 의식한 당대 독자들이 한문맥에 친숙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동시에 최남선 등이 한문맥에 친숙했고 한문학이 뛰어난 자산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국문으로 전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특히 그들이 '시(詩)'를 사유할 때, 시경에 근거해서 사유한 흔적들이 공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이들 시의 단일한 기원(基源)이 한문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한문맥은 그들의 중층적 원천(源泉) 중의 하나였다. 이 논문은 근대시인들이 한문맥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창작을 했던 면모를 부각했다. 이는 기존의 한국 근대시사에 대한 탐색이 구문맥(歐文脈), 일문맥(日文脈), 국맥(國脈)과의 관계에 집중되었던 것을 넘어서, 한문맥과의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논의함으로써 한국 근대시사를 새롭게 조명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문맥과 근대시의 관계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문맥은 단지 지엽적인 소재나, 당대 시인이거나 누구나 지닐 수밖에 없었던 교양 수준으로 간주되어 왔고, 소논문 분량이나 저서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것에 그쳤다. 따라서 최남선, 이광수, 김억이 썼던 한시는 본격적으로 그들의 국문시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과거 유습으로만 여겨졌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시론에서 유의미하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문맥의 개념어들도 충분히 주목되지 못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한국 근대시의 형성을 (일본을 경유한) 구문맥에 초점을 맞추거나, 민족주의적 열망을 토대로 조선(어) 전통의 지속만을 강조하려는 욕망 때문이다. 실증적으로 한국 근대시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욕망에 가려있던 한문맥의 영향을 조명하는 것을 통해서, 구문맥과 조선(어) 전통을 상대화하고 이들 사이의 교섭을 포착하려 했다. 물론 이러한 논의 구도 자체가 '서구적 근대'나 '조선(어) 근대'를 대타향으로 놓고 이와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한문맥 근대'를 문제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¹⁾ 그러나

1) 근대라는 것은 역사적 현상이자 개념적 구성물이라는 두 가지 층위를 지닌다. 물론 개념적 구성물은 역사적 현상에 기대어 규정된다. 그럼에도,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근대' 그리고 이것의 특성으로서의 '근대성'은, 모든 개념이 그러하듯이, 현상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특정한 면모만을 부각한다. 이 논문은 특히 한국 근대시 연구에서, 한국 근대시의 실상을 탐구하기에 앞서 서구적 근대에 비추어서 한국 근대시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다시 새롭게 한국 근대시를 탐구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 아래에서 쓰였다. 때문에 '근대성'을 서구적 근대의 특징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비판하며, 비서구 현대와 연속적인 근대의 복잡다단한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근대성'으로 규정하며 이의 의미를 찾으

이미 서구적 근대나 조선(어) 근대와 관계 속에서 구성된 한국 현대시 연구의 주류적 흐름을 상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로 설명되지 않는 다른 차이들을 부각하는 일이 필요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문맥은 근대시의 선구자들이 중요하게 활용했던 원천이었다는 것을 부각함으로써, 그들의 시에서 드러나는 한시적 요소, 한문맥적 사상, 그들의 시론에서 한문맥적 개념이 논리적 계기로 활용되는 것, 그들이 썼던 한시와 그들의 한시 번역을 통합적으로 고찰했고, 이것이 그들의 시와 시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이는 근대문학은 서구-중심부, 비서구-주변부라는 도식을 바탕으로, 비서구의 근대문학은 “서구의 형식과 지역의 현실”²⁾을 바탕으로 구성된다는 전제를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다. 즉, 근대시 형성기 선구자들은 일방적으로 서구나 일본 문학에 함몰되거나, 조선(어) 전통만을 계승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한문맥, 구문맥, 국문이라는 기존에 존재하는 중층적 맥락들을 활용해서 근대시를 고민하고 이를 창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특정 맥락의 왜곡된 결여나 모방 또는 이의 실패로 한국 근대시 형성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근대시의 풍요로운 지평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근대시 형성기에 근대시를 읽었던 독자와 이를 의식하며 시를 썼던 시인들이 한문맥 문화관습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해명하려 했다. 이의 배경으로 당대 한문 교육의 비중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한시도 융성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한문맥은 박제된 전통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구문맥을 수용하고 번역하면서 갱신되는 중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문으로 번역되면서 국문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본론에서는 최남선, 이광수를 III장에서 김억을 IV장에서 김소월을 V장에 다루어, 시인별로 그들의 시론, 한시 번역, 한시와 국문시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 글에서는 이들의 시론, 한시 번역, 한시와 국문시가 어떠한 연속성과 차이를 지니는지를 서술해서, 한문맥과 근대시 형성의 통시론적 관계를 조망하고자 한다.

근대시론과 한문맥의 관계에서, 최남선과 이광수는 한문맥의 이념, 즉 문(文)과 사(士)의 이념을 활용했다. 최남선은 ‘입지(立志)’나 ‘성(誠)’과 같이 한문맥의 존송받는 개념을 활용해 과거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이용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다. 이에 해당하는 서구나 일본의 문헌들을 번역하며 적극적으로 이와 한문맥을 병치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했다. 이광수는 표면적으로는 기존 한문맥과 단절을 주장했지만, 근본적으로 사의 이념을 지속했다. 그는 ‘광이충지(擴而充之)’ 등 맹자의 논리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이 권위를 공개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다. 또 기존 한문맥에서 배척당한 ‘정(情)’을 주장했지만, 실상 그 논리는 기존의 ‘양성(養性)’의 내용이었다. 즉 최남선은 적극적으로 한문맥을 다른 문맥들과 병치하면서 다른 문맥들을 한문맥을 바탕으로 이해하려고 하였고, 이광수는 표면적으로는 한문맥을 거부하였지만, 그 거부의 논리 속에는 한문맥이 계기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김억은 개성적인 문학을 옹호하며 언어 자체의 심미성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문이재도론에서 벗어나며, 서구 낭만주의적 문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그러나 ‘천리(天理)’나 ‘사무사(思無邪)’와 같이 한문맥

려고 한다. 여기서 ‘비서구 근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비서구의 ‘근대’라는 중층성을 의미한다. 이는 다중적(multiple) 근대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Tu Wei-Ming에 따르면,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의 적극적 에이전트로서의 존재, 비서구 문명의 근대 서구에 관한 이해, 그리고 지역적 지식의 전지구적 중요성이라는 세 가지 상호연관된 가정 때문에 상정되는 개념이다. Tu Wei-Ming, ‘Multiple Modernities: A Preliminary Inquiry into the Implications of East Asian Modernity’, Lawrence E. Harrison & Samuel P. Huntington ed., *Culture Matters -How Value Shape Human Progress*, NY: Basic Books, 2000, p. 256.

2) Franco Moretti, “Conjectures on World Literature”, *New Left Review*, Jan 1, 2000, p.60.

에서 존송받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그 의미를 전유하여 자신의 논거로 삼았다. 김소월 또한 시인마다 고유한 미학적 인식을 강조하고 시어 하나하나의 울림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시혼」에서 한문맥의 세계관인 ‘생생(生生)하는 역(易)’의 세계와 구문맥의 ‘영원 불변(永遠不變)하는 영혼(靈魂)’의 주체를 절합하여 독특한 시론을 전개했고, ‘정성위음(鄭聲衛音)’과 같이 기존 한문맥에서 부정되던 개념을 오히려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전개했다. 즉 김억과 김소월은 한문맥 개념어의 화행 가능성을 조작하여, “혁신적 이념가”³⁾로서 새로운 사상을 한국근대문학에 도입했다. 최남선에서 김소월에 이르기까지 한문맥은 시론에서 중요한 개념들로 사용되었지만, 최남선이 기존의 한문맥적 문학론과의 거리가 가장 밀접하다면, 김소월에 이르기까지는 점점 그 한문맥의 개념을 활용하면서도 기존의 한문맥적 문학론과 거리를 벌리면서 자신들의 독특한 문학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문맥은 이들의 시론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문맥은 시인들의 논지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활용되어서 더욱 풍요롭고 중층적인 시론을 생성하는 원천으로 기능했다.

최남선은 한시를 공식 매체에 발표했고, 국문시보다 한시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생긴다고 고백했다. 그만큼 그에게 한시는 친숙한 것이었고, 국문시도 한시에 중요한 이미지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썼다. 이광수도 공식 매체에 한시를 발표했지만, 주로 한문맥의 문화적 관습과 연관된 시였다. 그는 한시의 다양한 형식을 국문시로 실험했으며, 그의 국문시에는 ‘선비’라는 자아상이 나타났다. 반면에 김억은 수많은 국문시를 공식 매체에 발표했지만 한시는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 그에게 한시는 근대매체에 발표할 수는 없는 타자의 형식이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서간에는 한시를 써서 지인들에게 보내며⁴⁾, 한시의 형식을 그대로 국문시로 전유해서 썼고, 한시를 번역하는 것이 낙이라고 고백했다. 또 최남선과 이광수가 평수운에 근거해서 한시를 썼다면, 김억은 이러한 형식은 조선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운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한시를 썼다. 최남선에게 한시는 국문시와 거의 동등하게 자기 생각을 펼치는 도구였다면⁵⁾, 이광수에게는 문화관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기능했다. 이들은 공식 매체에 한시를 발표했지만, 김억에게는 한시는 개인적인 서간으로만 쓸 수 있었고, 한시는 번역을 통해 국문시로 탈바꿈할 대상이었다.

최남선, 이광수, 김억, 김소월은 각기 상상력과 이미지, 언술 구조, 세계관이라는 다양한 층위에서 한문맥과의 연관성 속에서 국문시를 썼다. 최남선은 ‘인자요산, 지자요수(仁者樂山, 知者樂水)’ 그리고 ‘서자(逝者)로서의 물’이라는 상상력 아래에서 국문시를 창작했다. 이는 최남선이 지속했던 ‘문’의 이념하에서는 당연한 귀결로, ‘인자요산, 지자요수’ 그리고 ‘서자로서의 물’은 결국 열심히 수양하자는 계몽적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와 상상력이었다. 바꿔 말하면, 문의 이념과 계몽의 의지가 한문맥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국 근대시의

3) 이 개념은 스키너가 17~18세기 상업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자본가들이 기독교 어휘들의 화행 가능성을 조작하면서 부정적인 어휘들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을 명명하는데 쓰였다. 여기는 김소월이 이와 유사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보고 그의 개념을 사용했다. Skinner, Quentin, 『역사를 읽는 방법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 황정아, 김용수 옮김, 돌베개, 2012, 235~242면 참조.

4) 박사논문에서는 김억이 지인에게 보낸 한시 4편을 다루었다. 김억의 한시가 최근에 다시금 발굴되어 주목을 요한다. 제1회 동아옥션 경매에서 김억이 유봉영에게 보낸 편지 28건 76편이 경매에 부쳐졌다. 한문으로 된 편지 1918.1.14., 한시 4편 1919.8.22.가 특히 주목을 요한다. 이 경매에서 김억의 편지는 2~3억 사이에 낙찰되었다고 한다. 아직 누가, 어떤 목적으로 낙찰받았는지, 연구자나 대중에게 공개될지 여부는 불명이다.

5) 최남선은 국문과 한시의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여 작성했음을 정기인, 채송화, 『『청춘』 소재 한시 연구』, 『한국한시연구』 25, 한국한시학회, 2017에서 확인했다. 최남선은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한시 형식을 활용하여 일제에 대한 비판을 보다 날카롭게 행했다면, 국문으로는 정보전달에 치중했다.

선구적 모습들을 추동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자요산’이라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준비론적인 수양론의 상상력을 토대로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조선의 특수성을 강조할 수 있는 산의 이미지로 변화된다. 이광수 또한 ‘문장보국(文章報國)’을 내세우면서 기존의 사(士)와 문의 이념을 자신의 한시와 국문시에 담았다. 그는 자주 과거 한문전통과의 급격한 단절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한문맥적인 ‘문’과 ‘사’의 이념을 바탕으로 ‘문사(文士)의 수양(修養)’을 주장했다. 또한, 그의 시에서는 초기에서부터 계속 ‘선비’라는 전통적인 지식인이 이상적 이미지로 나타났다. 최남선과 이광수의 시는 개인적인 내면의 고백이나 풍경의 발견이 아니라 선재해있는 문의 이념을 바탕으로 형상적(figurative)인 물의 이미지를 그리거나(최남선), 사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적 자아를 구성하고 있다(이광수). 즉 이들은 개성적인 내면이 아니라, 선재한 이념을 표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 최남선과 이광수는 한시의 형식을 의식하고 이를 변형하여 국문시를 썼다. 최남선은 어수와 구수의 정형을 인식하면서 어수를 고정된 채 4행씩 2연이나 8행씩 2연 구성으로 대부분의 국문시를 썼다. 특히 근체 한시를 본격적으로 『청춘』에 게재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국문시 또한 4행 4연 7·5조를 기본형으로 하는 국문 정형시로 수렴되었다. 그는 시를 ‘읽는 시’와 ‘노래하는 시’로 구분하면서, 노래하는 시는 창가나 시조형식으로 썼다면, 읽는 시는 다양한 음수율과 운을 한시 번역을 토대로 실험했다. 이광수도 한시 형식에서 비롯한 언문풍월을 쓰고 한시형식인 송(頌), 송(送), 악부시(樂府詩)의 형식, 그리고 죽은 자를 애도하는 만시(輓詩) 형식을 차용하여 국문시를 지었다. 그러나 최남선과 이광수의 한시 번역은 일회적인 것이었고, 한시 형식을 그대로 국문으로 도입했을 뿐, 이것을 조선어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조선적인 새로운 시 형식으로 변용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거나 새로운 조선적 시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다. 즉 그들은 조선적 근대시를 모색했지만, 아직 시론의 층위에서 조선적 특수성과 근대성에 대한 이론적 자각이 부족했다. 한시의 형식을 국문시로 재창작하기 위한 꾸준한 실험과 시론 층위에서의 조선적 근대시 천착과 개인 내면의 묘사는 이광수의 제자인 김억을 기다려야 했다.

김억은 한시의 언술 구조인 대장구조를 그의 초기 시부터 1920년대 시까지 반복했다. 그는 이러한 대의 구성으로 개인의 내면을 포착했다. 앞서 최남선과 이광수의 시에서는 선재하는 문과 사의 이념이 시에서 나타났다면, 김억에게는 그러한 선재하는 이념이 자아를 굳건하게 지탱하지 않는다. 그의 시적 자아는 ‘지평의 상실’로 인해 “해파리”처럼 의지할 곳 없이 유랑할 뿐이다. 아무런 방향성 없이 외부의 힘에 몸을 맡기는 해파리라는 상징은, 정체성을 굳건히 지탱하던 기존의 외부적 가치 지평 상실에 따른 정체성 혼란의 이미지를 포착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내면은 여전히 한문맥적인 대의 구성과 특히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서 포착되었다. 김억은 800여 편의 한시를 번역하여, 한문맥을 타자화하며 동시에 이를 국문으로 재창작하여 문화적 자산을 풍요롭게 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분명히 ‘조선적 특수성’과 ‘근대성’에 대한 고민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쉽게 한시나 영시 또는 일어시의 형식, 시조나 민요의 형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다. 그는 조선어가 어떠한 가능성을 지녔는지, 이는 시어로서 어떠한 음악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시론을 가다듬었다. 그럼에도 그는 한시를 강하게 의식하면서 국문시를 쓰고, 한시 번역을 하면서 한시에 강력한 영향을 받은 ‘조선적 근대시’ 형식인 격조시형을 창안했다.

김소월은 영원한 것과 변화하는 것, 그리고 빛과 그늘이라는 각기 구문맥과 한문맥이 상징하는 핵심적인 세계관의 충돌을 동력으로 삼아서 시를 썼다. 김억이 형식적인 대의 구성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냈다면, 소월은 심층적으로 영원한 것과 변화하는 것의 대립을 통해서

개인의 내면을 드러냈다. 그의 국문시는 한문맥의 영향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기존 한문맥을 전복하여 충격을 선사한다. ‘애이불비(哀而不悲)’의 「초혼」류의 애사를 애끓는 절규로 변형시키거나 한문맥에서 기피하는 ‘정성위음’ 추구를 한시 번역에서 보여주었다. 원시에 없는 영탄조와 직접적인 감정 토로를 삽입하여, 원시보다 격정적인 감정 표현을 했다. 한시의 주제도 망국의 설움, 기생의 죽음, 이별의 슬픔 등의 감정을 절실하게 노래한 것을 뽑아서 이를 더욱 격정적으로 표현했다. 또 유배객의 심정을 담은 한시를 번안하고 이를 기반을 둔 국문시를 써서 망국민의 설움을 유배객이라는 한문맥의 주요한 전통에 기대어 표현했다.

최남선, 이광수, 김억, 김소월은 한문맥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시와 시론을 전개했다. 그러나 분명 이는 그 이전 시기 시(詩)는 한시를 의미하고 가(歌)는 조선어 노래를 의미했던 것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근대시에 노래의 이념이 유지되고 있었고, 종종 시인들은 ‘시가’라는 이름으로 국문시를 지칭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시인들이 유성기음반 가사도 썼고, 많은 한국 근대시가 민요를 계승하고 ‘민요시’를 추구했던 측면이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최남선 이후 ‘근대시’는 국문으로 쓰였고, 노래로 불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선 시기와 단절이 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근대시는 그 이전 시와 전면적으로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한문맥은 이들이 시론을 전개하고 시를 창작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었고, 동시에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도구였다. 이렇게 근대시 형성과 한문맥의 관계를 해명한 작업은 한반도의 문학사가 한문학과 국문 문학의 상호교섭으로 이루어졌다는 장기적 안목을 근대 이후로까지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근대시와 한문맥과의 관계는 이 논문이 중점적으로 다룬 1910~20년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후 한용운, 양주동, 정지용, 이육사, 신석초, 조지훈, 박목월 등도 한문맥을 활용하며 자신들의 시와 시론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식민지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김수영⁶⁾, 오세영, 김수복, 문태준, 손택수에게 이르는 현대 시인들에게까지 한문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이 논문의 시각을 시점으로, 앞으로 한국 근대시사와 한문맥의 관계를 다방면에서 탐구하는 후속 연구들을 기대한다. 한문맥은 분명 당대 중요한 자원이었고, 근대시인들은 이를 활용해서 근대시를 창안했다.

이러한 한문맥, 구문맥, 일문맥, 국맥을 뒤섞으며 이를 원천으로 삼아 풍요로운 시들을 창출해 낸 것이야말로, 한국 근대시의 ‘근대성’을 특징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구사상과 문학을 소개하면서도 문과 사의 이념에 근거해서 시를 썼던 최남선과 이광수, 낭만주의적인 개성적 문학을 옹호하기 위해 한문맥의 개념을 전유한 김억, 구문맥, 한문맥, 국맥의 세계관의 긴장과 갈등을 샤먼이라는 국맥의 방법론과 노래의 정신을 바탕으로 풀어낸 김소월, 이러한 특징들은 한국 근대시의 ‘근대성’과 그 풍요로운 맥락들을 잘 보여준다. 한문맥을 방법으로 하여, 구문맥과 한문맥을 상대화하고, 내재적으로 한국 시사를 재구성하며, 잊혔던 실험들을 복원하는 것, 이를 통해서 한국 시사를 서구중심주의나 조선(어) 민족주의를 넘어서 복수의 근대를 복원하며, 나아가 동북아 한문 문화권의 유사와 차이를 견줄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다.

6) 김수영과 한문맥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김상환, 『공자의 생활난 -김수영과 「논어」』, 북코리아, 2016 참조.